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ldren's Self-Control :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Reflection

강 기 숙**
Kang, Gi Sook
이 경 남***
Lee, Kyung N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nd children's reflection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in the resistance to temptation situation. Subjects were 85 3-, 4- and 5- year old children attending educational preschool and their mothers. Each subject's activities were videotaped for 10 minutes in the experimental settings. Children's reflection was evaluated by Kagan's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MFF). Mothers completed a parenting questionnaire. Results showed no age or sex difference in resistance to temptation. Task patience increased with age, and girls had more task patience than boys.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and task patience correlated with children's reflection and mother's parenting. Children's MFF latency and mother'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predicted children's resistance to temptation. Children's MFF errors, sex, age and mother's warmth-acceptance predicted children's task patience.

Key Words : 자기통제 행동(self-control), 사려성(reflect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3일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아대학교 석사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E-mail : knlee@daunet.donga.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더 나은 성취를 위해 현재의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성취를 위하여 인내하는 능력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정서, 도덕성 등을 비롯한 인지적, 사회 정의적 발달에 필요한 능력의 하나로 자기통제(self-control)가 지적되고 있다(송명자, 1995). 자기통제가 낮은 아동들은 충동적이고, 과다행동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도 흥분을 잘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Cantwell, 1977; Routh, 1980). 이러한 성향은 이미 유아기에 형성되며 이후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반항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Beckwith, Rodning & Cohen, 1992; Shaw, Keenan & Vondra, 1994). 최근 국내에서도 자기통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가지며(김선희, 김경연; 1998), 낮은 자기통제의 아동은 더 비행이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민수홍, 1998). 반면 자기통제를 적절히 발달시킨 아동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신중하며, 학업 및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hoda, Mischel & Peak, 1998). 그러므로 생의 초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는 이후 발달 단계에도 안정적이며 청년이나 성인기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중요 예측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Shaffer, 1999). 따라서 바람직한 결과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자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성장기의 유아에게 획득되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제

로 볼 수 있다.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는 만족 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행동제지(inhibition of action), 혐오적 상황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noxious situation)와 성인의 요구와 지시에 따르는 순응(compliance) 등의 행동유형으로 표현된다(Bradshaw, Usui, Miyake, Campos, & Campos, 1991; Honig, 1985; Mischel & Moor, 1973; Vaghn, Kopp, & Krakow, 1984). 이 중 유혹저항과 지루한 과제에 대한 인내는 3세 이후의 유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기통제행동이다(곽혜경, 1998).

유혹저항행동은 아동이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지금 꼭 해야할 숙제를 하고 있는 아동에게 친구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이러한 유혹을 스스로 제지하고, 숙제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TV, 전자오락 및 유해인터넷 사이트 등 오늘날 아동의 일상에 여러 형태의 유혹들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유혹에 적절히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기에 획득되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 또한, 아동이 현재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는 유혹을 제지하고, 싫지만 해야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인내(tolerance for achieving task)가 함께 요구된다. 자기통제를 특수한 상황에서의 개인의 활동이라고 보는 Kanfer와 Goldstein(1991)은 유혹저항이나 혐오적인 상황에 대한 인내를 자기통제의 중요한 요소들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행동과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인내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인내를 함께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유혹저항 행동은 3-4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6세경에 나타나는 유혹억제방략의 발달과 함께 현저한 유혹저항 행동을 보인다(Cole & Cole, 1989; Mischel, 1981; Shaffer, 1999). 유혹저항 방략에는 자기이탈방략(self-distraction strategy)과 자기교시방략(self-instruction strategy)이 있다. 자기이탈방략은 유혹적인 대상에 시선을 주지 않는 등 회피하거나 주의를 이탈하는 방략이다. 자기교시 방략은 “만지면 안돼”, “만지면 나쁜 아니야” 등 유혹금지행동을 스스로 명령하는 유혹억제방략(temptation inhibition strategy)과 “숙제를 해야 착한 아이야”, “해야해” 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스스로 지시하는 과제지향방략(task oriented strategy)의 두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두유형의 자기교시 방략들은 가르치고 지시하여 자기통제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유아들에게는 과제지향방략 보다 유혹억제 방략의 학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Mischel & Paterson, 1977; Sawin & Parke, 1979).

이처럼 유아기 아동에게는 방략사용을 지시하고 가르쳤을 때 유아들은 방략을 사용하여 자기통제행동이 개선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자기통제 방략 사용은 초등학교 학령초기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혀지고 있다(Mischel & Mischel, 1983; Toner & Smith, 1977). 초기의 자기통제발달에 관한 연구(Mischel & Ebbesen, 1970)에 의하면 3-5세 유아의 대부분은 유혹적인 대상에 주의를 두지 않으면 유혹저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략을 모르므로 유혹적인 대상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출생에서 아동기 초기까지의 자기통제발달을 살펴본 Kopp(1982)는 자율적

인 자기통제는 3세, 4세 경에 나타나며 학령기 초기가 되면 계획된 자기조절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유아기 동안 유혹저항을 비롯한 자기통제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통제행동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혹저항행동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곽혜경, 1998) 만족지연행동에서도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허수경·이경남, 1995)되고 있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남, 2001; Kendall & Wilcox, 1979)도 있어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성차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Messer(1976)는 자기통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5세경 뚜렷이 발달되는 사려성의 인지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혹저항이나 과제인내를 요구하는 문제해결 상황에서 여러 대안의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려성은 자기통제와 병행하여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려성은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발달의 주요한 인지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유아의 유혹저항 및 과제인내와 사려성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Kendall과 Wilcox(1979)는 사려성이 높은 아동이 충동적인 아동보다 자기통제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만족지연능력을 살펴본 연구(허수경·이경남, 1996)에서도 사려적인 아동이 만족지연능력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욕구충족지연행동과 인지양식의 반응시간과 오답수의 두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미라, 1999)에서도 남아의 욕구충족지연행동과 인지양식의 오답수, 여아의 욕구충족지연행동과 인지양식의 반응시간의 유의

한 상관을 보고하였다. 최근 유아의 자기통제와 사려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사려성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임이 밝혀지고 있다(이경남, 2001). 위와같이 아동의 자기통제와 사려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의 일치하는 사려성이 자기통제행동의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려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외에 가족환경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검증되고 있었다. 아동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에 의하면 온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ochanska & Aksan, 1995). 또한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아동의 독립심에 대하여 격려와 지지를 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며 환경적 요구에 적합하게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며(Silverman & Ragusa, 1991)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계 있음이 보고(안미경, 1996)되었다. 반면, 자녀에게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어머니는 유아의 반항적 행동을 초래하며(Crockenberg & Littman, 1990)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경남, 2001). 따라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부적이고 권위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무시하는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충동적이

고 부적응된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ochanska, 1991)를 감안할 때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사려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기통제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의 사려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기의 중요한 자기통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 유혹저항과 과제인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를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사려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및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힌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를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연령, 성 및 사려성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및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사려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높여주고 나아가 유아의 바람직한 자기통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연령(3, 4, 5세)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사려성(반응시간, 오답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어머니 양육행동(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자기통제행동

자기통제란 유아가 바람직한 과업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대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혹저항상황에서 금지된 장난감을 만지고 싶은 유혹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루한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지를 자기통

제행동으로 정의하였다.

- (1) 유혹저항 : 금지된 장난감을 처음으로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
- (2) 과제인내 : 실제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보낸 시간

2) 사려성

사려성이란 문제상황에서 심사숙고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agan(1965)이 제작한 같은 그림찾기 검사(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로 측정된 반응시간과 오답수의 개인별 점수로 정의한다.

- (1) 반응시간 : 선택그림을 처음으로 지적할 때 까지 걸린 시간
- (2) 오답수 : 정답을 지적 때까지의 오답수

3)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분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으로 보고 양육행동검사에서 얻은 득점으로 정의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적 중류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J시에 소재한 S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에 재원 중인 평균연령 3세 6개월 29명, 4세 6개월 28

명, 5세 10개월 28명으로 총 85명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유아의 성별분포는 남아 44명, 여아 4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선정이유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율적인 자기통제행동이 3, 4세경에 발달된다(송명자, 1995; Kopp, 1982)고 보

로 3세를 중심으로 발달경향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103명이었으나 중간에 실험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마치지 못한 8명과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10명의 유아를 제외하여 총 85쌍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유아의 연령	3세 6개월	29(34)
	4세 6개월	28(33)
	5세 10개월	28(33)
유아의 성별	남	44(52)
	녀	41(48)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61(72)
	36세-40세	24(28)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2(2)
	고등학교 졸업	36(42)
	전문대 이상	47(56)
어머니 직업	사무직	16(19)
	판매/서비스직	19(22)
	무직/전업주부	50(59)
아버지 직업	전문직	8(9)
	사무직	34(40)
	판매/서비스직	39(46)
가계 수입	무직	4(5)
	150만원이하	14(16)
	151-200만원	35(41)
	201-250만원	21(25)
	251-300만원	12(14)
	301만원이상	3(4)

2. 연구도구

1) 자기통제행동

아동의 자기통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tz와 Lehman(1995)의 '장난감 금지기법' 실험을 토대로하고 곽혜경(1998)이 유아의 유혹 저항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찰방법을 참조로 '장난감 금지기법'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관찰상황은 다음과 같다. 네모난 방에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를 준비한다. 책상 위에는 도화지와 색연필(12자루 세트)을 준비해 둔다. 책상 앞으로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유아의 시선이 잘 닿을 수 있도록 '금지된 놀잇감'을 놓아 둔다. '금지된 놀잇감'으로는 디즈니랜드놀이, 피카츄 인형,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강아지 로봇(푸치)을 사용한다. 유아에게는 관찰자가 돌아올 때까지 방안에 있는 장난감은 만지거나, 가지고 놀지 말라고 지시하고 의자에 앉아서 그리기 과제를 계속하도록 한다. 유아에게 설명을 마친 후 관찰자는 10분간 방을 떠난다. 이때 관찰상황은 캠코드로 기록된다. 캠코드는 유아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설치되며 캠코드 조작은 리모콘으로 한다.

관찰상황이 끝나후 녹화내용을 통하여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두 측면에서 기록한다. 금지된 놀잇감과 놀고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초로 놀잇감을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 만진 횟수를 측정한다. 또한 지루한 과제에 대한 인내를 측정하기 위해 실제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캠코드로 녹화한다.

관찰측정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 유아 85명 중 15명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비디오로 녹화된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통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명이 유아가 금지된 놀잇감을 최초로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 만진횟수 및 그리기 과제에 계속적으로 종사한 시간을 각각 평정하였다. 두 관찰자의 평정간의 일치도는 95%였다.

2) 사려성 검사

유아의 사려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agan

(1965)이 제작한 MFF검사(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를 사용하였다. MFF검사는 2개의 연습문제와 12개의 본문제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한 개의 표준그림과 여섯 개의 선택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제시한 후 표준그림과 같은 그림을 선택그림 중에서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과 관계없이 '시작'신호로부터 첫반응이 나타날 때 까지의 시간과 정답을 맞출때까지의 오류수가 측정된다. 본래 MFFT는 반응시간과 오류수를 기준으로 반응속도는 빠르지만 오류수가 많은 아동과 반응속도는 느리지만 오류수가 적은 아동의 양 집단으로 구분하여 충동적 아동, 사려적 아동의 양분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분법은 양분되지 못하는 아동 즉, 반응속도가 빠르고 오류수가 많은 아동 및 반응속도가 느리고 오류수가 많은 아동들이 제외되는 방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조복희, 1999; Block과 Harrington, 198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양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려성 검사의 반응시간과 오답수의 양측면을 사려성과 충동성의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반응시간이 길수록, 오답수가 적을수록 유아는 사려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도구의 Spearman-Brown공식에 의한 반분신뢰도는 반응시간은 .87, 오답수는 .71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각 하위영역 8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온정·수용 21문항, 거부·제재 14문항, 허용·방임 8문항 모두 43문항 5점 평점척도로 구성

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온정·수용적이며, 더 거부·제재하며, 더 허용·방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행동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온정·수용 .82, 거부·제재 .65, 허용·방임 .6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1차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어린이집 교사를 통하여 최근에 유아들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장난감을 조사하기 위해 1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강아지 로봇(푸치), 디즈니랜드놀이, 피카츄 인형이 선정되었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강아지 로봇(푸치)은 유아가 쳐다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움직이고, 노래하고, 짓도록 되어있어 유아의 흥미를 자극하도록 되어있다. 디즈니랜드 놀이는 여러 가지 세트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기차가 돌면 세트들도 같이 움직이거나, 돌도록 되어있고, 피카츄는 흔들면 '피카츄'소리가 나도록 되어있다.

2) 2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는 임의적으로 표집된 3세, 4세 및 5세 유아 9명을 대상으로 '금지된 놀잇감'에 대한 흥미도와 지루한 과제 선정 및 인지양식 검사와 '장난감 금지기법' 실험상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찰 상황에 임한 유아들 중 '금지된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유아는 한명도 없었다. 지루한 과제로는 유치원 교사들의 조언을 얻어 단순한 그림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그리도록 하는 과

제가 선정되었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실제로 유아들은 단순한 그림을 계속적으로 그리는 과제에 곧 싫증을 내었으므로 지루한 과제로는 그리기 과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례성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인당 5분에서 10분 정도였다. ‘장난감 금지기법’ 실험은 절차상의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 예비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는 10분간 관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3) 본조사

본 조사는 2001년 2월 12일부터 3월 10일 까지 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정한 장소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1) 자기통제행동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장난감금지기법”을 실험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각 개별아동을 실험상황이 준비된 장소로 안내한 후 아동의 이름을 묻고 일상이야기를 통하여 라포를 형성하였다.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10분동안 관찰상황이 실험되었고, 모든 실험상황은 캠코드로 녹화되었다. 관찰상황이 끝난 후 관찰자는 유아에게 놀이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금지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유아에게 실험내용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시킨 뒤 돌려보냈다.

(2) 인지양식 검사

연구자가 MFF 검사지, stopwatch와 기록용지를 미리 준비해두고 유아가 입실하면 마주앉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라포를 형성한 후 조사를 시작하였다. 먼저, 2개의 연습문제를 실시한 뒤, 12개의 본문제를 풀 때, 연구자는 표준그림을 제시한 후 유아가 선택그림을 처음으로 지적할 때까지의 소요시간과 정답을 지적할 때까지의 오답수를 용지에 기록하였다.

(3) 어머니 양육행동

양육행동질문지는 유치원의 각 학급 교사를 통하여 유아들에게 배부하고 어머니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3주 이내에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WIN 8.0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척도의 신뢰도와 반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 Chi-square 검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연구문제 4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령과 성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통제행동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연령과 성에 따른 자기통제행동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령과 성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유혹저항, 과제인내)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 초)

		자기통제행동			
		유혹저항		과제인내	
		M	SD	M	SD
3세	남자(15)	353.53	229.70	152.47	75.38
	여자(14)	498.57	174.88	334.62	126.67
	전체(29)	423.55	214.52	240.41	137.38
4세	남자(14)	340.79	205.92	241.71	162.18
	여자(14)	421.71	242.65	327.07	140.21
	전체(28)	381.25	224.64	284.39	154.98
5세	남자(15)	502.60	166.98	346.93	157.99
	여자(13)	441.54	199.73	409.46	135.60
	전체(28)	474.25	182.07	375.96	148.17
전체	남자(44)	400.30	211.29	247.16	156.65
	여자(41)	454.24	205.31	355.78	135.60
전체		426.32	208.95	299.56	155.88

<표2>에서 나타난 자기통제행동(유혹저항, 과제인내)점수가 연령과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령과 성에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점수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유혹저항	주효과				
	연령(A)	115183.12	2	57591.56	1.37
	성(B)	64054.18	1	64054.18	1.52
	상호작용효과 A×B	157191.77	2	78595.88	1.87
	오차	3322001.21	79	42050.64	
과제인내	주효과				
	연령(A)	269314.83	2	134657.41	7.33**
	성(B)	256607.32	1	256607.32	13.97***
	상호작용효과 A×B	57650.64	2	28825.32	1.57
	오차	1451176.90	79	18369.32	

** p<.01 *** p<.001

<표 3>에 의하면 유아의 유혹저항은 연령 [F(2,79)=1.37 p>.05]과 성[F(1,79)=1.52, p>.05]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F(2,79)=1.8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의 유혹저항은 3세, 4세와 5세간에 안정되며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지된 놀잇감을 처음 만질때까지 걸린 시간외에 놀잇감을 만진횟수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지된 놀잇감을 만지지 않은 유아는 3세 17명(59%), 4세 11명(39%), 5세 16명(57%)이었고, 1-5회를 만진 유아는 3세 10명(34%), 4세 9명(31%), 5세 9명(31%), 6-10회 만진 유아는 3세 2명(7%), 4세 8명(28%), 5세 3명(1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6.24, df=4, p>.05$). 이는 유혹저항에서 3세, 4세 및 5세 연령간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지지해준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유아의 과제인내는 연령[F(2,79)=7.33 p<.01]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Duncun 사후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3세, 4세와 5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3세와 4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의 과제인내는 3세, 4세보다는 5세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3>에의하면 유아의 과제인내는 성 [F(1,79)=13.97, p<.001]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아의 과제인내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과제인내에 대한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F(2,79)=1.57,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연령 따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점수의 Duncan 사후검증 결과

연령	3 세	4 세
4 세		
5 세	*	*

2.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사려성의 관계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사려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사려성 점사의 반응시간, 오답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사려성의 상관관계

		자기통제 행동	
		유혹저항	과제인내
유아의 사려성	반응시간	.24*	.02
	오답수	-.10	-.46**

* p<.05, ** p<.01

<표 5>에 의하면, 유아의 유혹저항은 반응시간과 유의한 정적상관($r=.24, p<.05$)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과제인내는 오답수와 유의한 부적상관($r=-.46, p<.01$)이 나타났다. 즉, 유아의 반응시간이 길수록 유혹저항이 높고, 오답수가 적을수록 과제인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자기통제행동	
	유혹저항	과제인내
온정·수용양육행동	.15	.23*
거부·체재양육행동	-.11	-.00
허용·방임양육행동	-.23*	.06

* p<.05

<표 6>에 의하면 유아의 유혹저항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r=-.23, p<.05$)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과제인내는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적상관($r=.23,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유혹저항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53을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었다(<표 7> 참조).

먼저 유혹저항에 대한 변인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혹저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유혹저항과 유의한 상

<표 7>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연령	1.00								
2. 성	-.02	1.00							
3. 온정·수용	.02	.15	1.00						
4. 거부·제재	.08	.14	-.49**	1.00					
5. 허용·방임	-.03	.28**	-.19	.36**	1.00				
6. 반응시간	.06	.00	-.01	-.05	-.13	1.00			
7. 오답수	-.53**	-.13	-.03	-.12	-.05	.11	1.00		
8. 유혹저항	.10	.13	.15	-.11	-.23*	.24*	-.10	1.00	
9. 과제인내	.36**	.35**	.23*	-.00	.06	.02	-.46**	.35**	1.00
평균	1.99	1.48	78.49	34.53	17.85	5.76	2.28	426.32	299.55
표준편차	.82	.50	7.79	6.31	3.73	4.39	1.01	208.95	155.88

* p<.05, ** p<.01

관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유아의 유혹저항에 대한 유아의 사려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B	β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	-11.34	-.20*
유아의 사려성(반응시간)	10.40	.22*
회귀상수	.39	
F	4.55***	
R ²	.16	

* p<.05 *** p<.001

<표 8>에 의하면, 유아의 유혹저항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beta=-.20, p<.05$)과 유아의 사려성검사의 반응시간($\beta=.22, p<.05$)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인들은 유아의 유혹저항을 총 16% 설명하였다. 이들 변인중 유아의 반응시간이 더 큰 영향을 보였다. 즉, 유아의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유혹저항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유아의 과제인내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인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과제인내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과제인내에 대한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B	β
유아의 연령	35.73	.19*
유아의 성별	88.32	.29***
어머니의 온정·수용양육행동	3.48	.17*
유아의 사려성(오답수)	-48.79	-.32***
회귀상수	.57	
F	12.95***	
R ²	.32	

* p<.10 * p<.05 *** p<.001

<표 9>에 의하면 유아의 과제인내는 유아의 연령($\beta=.19, p<.05$), 성($\beta=.29, p<.00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beta=.17, p<.10$), 유아의 사려성 검사의 오답수($\beta=-.32, p<.001$)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인들은 유아의 과제인내를 총 32% 설명하였다. 이들 변인중 유아의 오

답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유아의 성, 연령,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오답수가 적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유아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경향을 보일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3,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를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에 대하여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연령, 성 및 사려성과 가족환경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및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하위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유혹저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3세, 4세, 5세간에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놀잇감을 만진횟수를 추후분석한 결과에서도 3세 17명, 4세 11명, 5세 16명이 실험시간동안 금지된 놀잇감을 전혀 만지지 않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3세, 4세, 5세간의 유혹저항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유혹저항이 3세, 4세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착된다는 선행연구들(Bradshaw 등, 1991; Vaughn 등, 1984)과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4세, 6세,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금지기법을 사용하여 4세, 6세 아동간에 유혹저항책략 사용의 차이가 없었다는 Holtz와 Lehman(199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Holtz와 Lehman은 장난감금지실험의 상황에서 4세 아동도 6세 아동처럼 실험초기동안은 금지된 놀잇감을 만지

지 않고 과제에 열중하였으며, 4세와 6세간에 유혹저항 책략사용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4세와 6세간에 유혹저항의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3세경에 나타나는 유혹저항행동은 적어도 5세경까지는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혹저항행동은 남아와 여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유혹저항이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곽혜경, 1998)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유혹저항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과제인내는 3세, 4세보다 5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루하고 싫지만 해야 할 과제를 참고 달성하려는 인내는 5세경에 현저히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세와 8세 아동간에 유혹저항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과제인내의 점진적 증가를 보고한 연구(Holtz & Lehman, 1995)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과제인내 수행을 위한 자기통제책략 사용을 위한 사려성이 5세경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장(Maccoby, 1980)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지루하고 힘들지만 해야 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려성이 5세경 나타나므로 과제인내에 대한 능력도 5세경에 함께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과제인내는 여

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지루하거나 해야할 과제에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통제가 높다는 연구(이경님, 2001; 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하였다.

둘째, 유아의 유혹저항은 사려성 검사의 반응시간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아의 과제인내는 사려성 검사의 오답수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반응시간이 길수록 유혹저항이 높고, 오답수가 적을수록 과제인내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서 충동적인 아동보다 사려적인 아동이 자기통제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만족지연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 결과(허수경·이경님, 1995; 이미라, 1999; Toner, Holstein, & Hetherington, 1977)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유아의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를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은 자기통제의 만족지연에서와 같이 사려적인 아동이 충동적인 아동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유아의 유혹저항과 과제인내는 사려성 검사의 두 측면과 각기 다른 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의 유혹저항은 반응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반응시간이 길수록 유혹저항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욕구충족지연상황에서 선택시간이 길 때 더 높은 욕구충족지연행동을 보였다는 연구(Mann, 1973)에 의해 지지된다. 즉, 사려성 검사에서 여러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반응하는 충동적인 아동은 유혹저항상황에서도 유혹대상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즉, 지시사항에 따르면 금지된 놀잇감과 놀 수 있다는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된 놀잇감을 충동적으로 더 빨리

만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과제인내와 사려성 검사의 오답수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여 오답수가 적을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이 인지양식검사의 반응시간보다 오답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선행연구(이미라, 1999; Toner, Holstein, & Hetherington, 1977)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는 사려적인 아동이 충동적인 아동보다 지속적인 주의집중력이 더 높다는 연구(Zelniker, Ault & Parsons, 1972)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문제해결의 다양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아동이 충동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아동보다 지루하지만 해야하는 과제에 사려깊게 대처하므로 해야할 과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 과제에 대한 종사시간도 더 많지 않나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족지연을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과 사려성-충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많았으나 유혹저항을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사려성-충동성의 영향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어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유혹저항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높이며,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를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자기

통제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 관계있다는 보고(안미경, 1996; Olson, Bates, & Bales, 1990; Silverman & Regusa, 1992)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만족지연과 자기통제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미라, 1999; 이경남, 2001)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는 아동의 사회화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동의 적절한 자기통제행동의 획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Aronfreed(1976)의 주장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는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자기통제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자녀의 충동적이고 부적응된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Patterson, Capaldi, & Bank, 1992)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가정은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에게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욕구나 충동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통제적 행동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온정·수용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자기통제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내재, 유아의 자기통제는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유혹저항은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반응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들 변인중 유아의 사려성 검사의 반응시간이 더 큰 영향을 보였다. 즉, 유아의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유혹저항이 낮았다. 이들 변인들은 유아의 유혹저항을 총 16% 설명하였다. 또한 유아의 과제인내는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 검사의 오답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들 변인중 유아의 오답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유아의 성, 연령,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이 컸다. 즉, 유아의 오답수가 적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경향을 보일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았으며 이들 변인들은 유아의 과제인내를 총 32%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유아의 사려성, 가족환경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사려성이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사려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 아동의 자기통제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이경남, 2001)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상황을 검토하며 심사숙고하여 상황적 요구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사려성은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중요한 인지적 변인이며, 유아의 개인내적 변인이 가족환경변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이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보다 어머니 양육행동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는 연구(이미라, 1999)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든다면

각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통제행동의 중심행동이 다르며 그에 따른 측정방법의 상이함에 기인하지 않나 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각 연구에서 대상 유아의 연령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과 가족환경변인의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단정적인 해석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일관성 있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의 과제인내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선정변인들은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나 유혹저항에 대한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자기통제에 관련되는 변인들이 포함되어 이들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발달은 각 하위영역에 따라 다르다. 즉, 유아의 유혹저항은 3세, 4세와 5세 간에 안정되며, 남녀 유아에게 있어 고른 발달을 보인다. 유아의 과제인내는 3세, 4세보다는 5세가 높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 둘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사려성과 관계가 있다. 즉, 유아의 반응시간이 길수록 유혹저항이 높고, 오답수가 적을수록 과제인내가 높다. 이는 유아의 사려성이 높을수록 자기통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관계가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유아의 유혹저항이 낮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유아의 과제인내는 높다. 이로써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도움이 되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유아의 연령, 성, 사려성,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었다. 즉, 유아의 유혹저항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일수록 낮으며, 유아의 사려성 검사의 반응시간이 길수록 높고 이 중 유아의 반응시간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또한, 유아의 과제인내는 사려성 검사의 오답수가 적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 경향을 보일수록 높다. 이들 변인중 유아의 오답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유아의 성, 연령,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유아의 사려성이 자기통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행동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으로 유아의 연령, 성, 인지양식, 환경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이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아동 개인적 변인으로 기질과 자아개념 같은 정의적 변인, 어머니의 훈육유형이나 가족분위기 같은 가족환경변인도 아동의 자기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변인이 모두 함께 포함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인과관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유혹저항행동 발달에 유혹저항전략과 상 위기억의 사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유혹저항행동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 일부지역

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이 많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아동들

을 더 많이 표집하여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인지양식과 자기통제행동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여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혜경(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민수홍(1998). 초등학교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1), 91-108.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46-68.
- 이미라(1999). 아동의 인지양식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욕구충족지연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1999). 아동발달. 서울 : 교육과학사
- 허수경,이경남(1995). 인지양식 유형과 보상의 제시 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아동학회지, 16(2), 221-233.
- Aronfeed, J. (1976). Moral develop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general psychological theory.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ckwith, L., Rodning, C., & Cohen, S.(1992). Preterm children at early adolescenc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aternal responsiveness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63, 1198-1208.
- Block, J. J. & Harrington, D. M. (1986). More misgivings about the MFFT as a measure of reflection-impulsivity : Absence of construct validity in pre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820-830
- Bradshaw, D. L., Usui, H., Miyake, K., Campos, R. G., & Campos, J. J.(199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liance. In M. Bullock(ed), *The development of intentional action, cognitive, motivational, and interactive processes* (pp. 55-68). Basel : Karger.
- Cantwell, D.(1977). Hyperkinetic syndrome. In M. Rutter & L. Hersov.(Eds.), *Child Psychiatry : Modern approaches* (pp. 524-535). London : Blackwell
- Cole, M., & Cole, S.(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New York : W. H.Freeman.
- Crockenberg, S., & Litman, C.(1991).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maternal and two-year-ol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930-953.
- Holtz, B. A. & Lehman, E B.(1995).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and use of strategies for self-control in a resistance-to-distraction task, *Merrill-Palmer Quarterly*, 41, 361-380.
- Honig, A. S. (1985). Compliance, control and discipline. *Young Children*, 41, 48-52.
- Kanfer, F. F. & Goldstein, A. P.(1991). *Helping people*

- change, A textbook of methods*(5th). Pergamon press.
- Kagan, J. (1965). Impulsive and reflective children : Significance of conceptual tempo. In J. D. Krumboltz (Ed.), *Learning and The Educational Process*. Chicago : Mcnally.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chanska, G.(1991). *Affective factor in mothers' autonomy-granting to their five-year-old : Comparisons of well and depressed moth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RCD. Seattle, WA.
- Kochanska, G., & Akson, N.(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7*(6), 1020-1029.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Y. : Marcurt Brace Javanovich*.
- Mann, L.(1973). Difference Between Reflective and Impulsive Children in Tempo and Quality of Decision Making, *Child Development, 44*, 274-279.
- Messer, S. B.(1976), Reflection-Impulsivit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3*, 1026-1052.
- Mischel, W., & Ebbsen, E. B.(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ischel, W., & Moore, B. (1973). Effects of attention to symbolically presented reward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72-179.
- Mischel . W., & Patterson. C. J. (1976). Effective plans for self-control in children.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1*. Hillsdale. NJ : Erlbaum.
- Olson, S. C., Bates, J. E. Bales, K. C. &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3;.
- Patterson, G. R., Capaldi, D., Bank, L.(1992). To paths to delinquency : The early and late a starter models. In K. Rubin & Pepler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Routh, D K.(1980). Developmental aspects of hyperactivity. In C.K. Whaler & B. Henker(Eds), *Hyperactiv children : The social ecology of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pp. 55-73). N.Y. : Academic Press.
- Sawin, D.B., & Parke, R.D.(1979). Development of self-verbalized control of resistance to dev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0-127.
- Sc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5th ed), California, Books/cole.
- Shaw, D. S., Kaneen, K., & Vondra, J. J.(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 Age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 Shoda, Y., Mischel, W., & Peak,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ilverman, I. W., & Ragusa, D.M.(1991).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month-old children :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7*(1), (Journal insert).
- Toner, I. J., Holstein, W. B., & Hetherington, E. M (1977)., Reflection -Impulsivity and Self-Control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239-245.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Zelniker, T., Jefferey, W.E., Ault, R., & Parsons, J.

(1972), Analysis and Modification of Search Strategies of Impulsive and Reflective Children on the Matching Familiar Figures Test. *Child Development, 43*, 321-325.